

2018 년 1 월 14 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1-10)

<도입>

오늘은 지난 주에 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 삶과 말씀이 어떠한 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경외심을 가장 중요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귀감이십니다.

[1]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히브리서 저자)

히 5:7-9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경건하심(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합하고 기뻐하시는 자질을 갖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있는 자의 모습을 8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깊은 경외심을 가졌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예수님’을 대입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당신 것임이요’, ‘애통하는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경외심에 기초한 예수님의 인성이 어려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인성(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리고 목마름, 긍휼이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함, 의를 사랑함)의 측면을 보면 모두 **내면에 거의 10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줄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성은(예수님에 비추어 볼 때) **경외심에 뿌리내린 내면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태도(경외심)와 인성(온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십니다.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물질, 건강, 외모, 업적 같은 외형적인 것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중도적 가치). 과학과 기술 발전, 또 진보하는 사상이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온전성을 향한 인성은 이러한 중간적 가치들로가 아니라, 내적 변화와 성장으로만 가능합니다.

[2] 온전함을 향하여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용).

- 사고유형 - 사고/개념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룰 때 최대 능력을 발휘함.
- 감정유형 - 느낌(감정교류)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발견.
- 감각기능 - 현실 기능.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해 통찰하게 하는 기능. 감각을 통해 전달받는 정보에 예민하고, 실생활 일들을 잘 처리한다.
- 직관기능 - 내면 세계,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무의식적 지각”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위의 어떤 기능으로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기능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체적 균형을 지키고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고(의식적인 인성의 중심)가 발달할수록 자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잘 되는 한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에고가 편안해 하는 기능을 상위 기능으로, 나머지 것들은 하위 기능들로 여깁니다.

인성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다른 기능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기나 절실한 필요를 맞기 전까지 우리의 인성은 기울어진 채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한편, 4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 참고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유형의 통합에 온전성을 보여주십니다. 샌포드의 예수님에 대한 통찰.

- **사고 기능**의 탁월함은 바리새인들과의 지적 대결에서 신속한 논리 분석, 예리한 사고로 나타남.
- **감정 기능** 복음서에 12 번, '민망히(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함. 이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주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감정 표현.
- **감각 기능** 당신이 살았던 현실 세계에 대해 예리한 인식이 있으셨음. 가르침과 비유를 보면 겨자씨, 씨뿌리는 일, 잃어버린 동전 등...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실례들을 사용하심.
- **직관기능** 내면의 통찰로는 바로 알 수 있는 것, 예: 질문하는 자들의 악함을 보심; 모든 사람을 아시는 통찰(요 2:24)을 말함.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의 온전성은 당신의 의식 속에 아버지의 초자연적 뜻을 알고 행하려는 **경외심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 지혜서는 모든 지혜(온전함)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성의 비온전성은 예고의 왜곡과 편중성에서 옵니다. 이 예고의 문제는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풀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8 복의 묘사들이 복인 줄 알고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의 참된 복이 경외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편안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2. 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과 삶과 죽음에 대해 기록했을 때, 그분은 내면의 균형을 잘 이루어 온전하심을 말해줍니다. 나의 내면의 균형은 어떠합니까? 위의 내용을 참고하고, 남성성/여성성, 외향적/내향적 측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본문에서 묘사된 8 복의 내용들(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등...)이 진정으로 나의 복을 이루는 모습임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의 축복이란 무엇이길래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8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